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1 ‘신기촌 사람들’				
구술자명	고병선, 조영숙	면담자	이경희, 이명순		
면담장소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8년 6월 14일(목) 오후3시30분	회차	1	시간	분 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60				
구술 개요	60년대 중후반~70년대 초, 냇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논에서 공을 차며 놀. 주안의 주요 건물로는 아폴로극장, 시민회관 등이 있었음. 진흥요업의 사이렌 소리가 일대에 다 울렸음. 신기시장과 진흥요업이 서로 붙어 있었고, 신기시장 뒤로는 판자촌이 조성되어 있었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기촌으로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신기시장이 형성됨. 진흥요업과 화장터 사이를 넘어가면 나오는 신비마을 위쪽으로 중국인 발이 많았음. 남동구와 연수구 모두 남구(미추홀구)였음. 주안2동 시민회관 일대로 개발이 이루어짐. 냇가를 수변공원 등으로 조성하지 않고 없애버린 것이 아까움.				
주요 색인어	주안, 말산, 세미산, 신기시장, 인주로, 독정이, 복개, 냇가, 논, 미꾸라지, 아폴로극장, 중앙극장, 제일시장, 5번 버스, 신기촌, 종점, 시민회관, 진흥요업, 화장터, 한국도자기, 사이렌, 판자촌, 서문통닭, 진흥관, 문학산, 배꼽산, 레이더, 성황당, 남동염전, 신비마을, 여우고개, 쥐불놀이, 자유공원, 수봉공원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60년대 중후반~70년대 초의 기억			-		
- (고병선)기계공고 맞은편에 라이터 공장과 우물이 있었음. - (고병선)31년간 주안에서 살다가 결혼 후 4년 동안 서구에 산 뒤 다시 남구(미추홀구)로 돌아옴. - (고병선)한라아파트, 부경아파트 자리에 말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말산’ 이 있었음. 주안3동 명보주유소 자리에는 세미산이 있었음. - (조영숙)신기시장 큰길가에 있는 교회 바로 뒤편에 살았었음. - 인주로 일대로 독정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이 있었음. 80년대에 복개를 하면서 도로가 넓어짐. - (고병선)어렸을 때 냇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논에서 개구리를 잡음. - (조영숙)당시에는 남구(미추홀구)에 주안초, 용일초, 용현초 3곳 밖에 없었음. - 80년대 중후반에 생긴 남부초 일대는 원래 논이었음. - 기계공고 일대에서는 용일초에 다녔고, 주안동 일대에서는 주안초에 다녔음. 학익동에서는 문학초에 다녔음.					

2. 신기촌의 놀이/문화공간 - 동네에서 놀았던 기억은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것만 남아 있음. - (고병선)겨울에 논에서 공을 차고 놀거나 봄, 여름에는 냇가나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며 놀았음. - (조영숙)장마 때 냇가에 물이 넘치면 누군가 아이들을 넘겨 주었던 기억이 있음. 그늘진 다리 밑에서 놀다가 신발이 떠내려가기도 함. - (고병선)기억에 남는 문화공간으로는 아폴로극장(중앙극장)이 있음.	-	
3. 당시 주안의 주요 장소들 -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제일시장이 가장 앞섰음. 당시 신기시장은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형태. - (고병선)제일시장에는 채소 경매를 하는 깡이 있었음. - (고병선)시민회관사거리에서 신기촌으로 가는 직선 도로는 없었고, 5번 버스가 유일하게 신기촌을 종점으로 운행했음. - (조영숙)주안동이 나누어진 것은 남부초가 만들어질 무렵. - 주안의 큰 건물로는 아폴로극장, 시민회관 등이 있었음. 시민회관에서 졸업식, 학예회 등을 함. - 신기촌에 있었던 진흥요업 옆으로 화장터와 신기시장이 있었음. - (조영숙)신기시장 맞은편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창문으로 들어가기도 했음. - (조영숙)버스 종점은 교회 앞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용현동 일대까지 옮겨가기도 함.		
4. 진흥요업(한국도자기) - (조영숙)쌍용아파트가 한국도자기(진흥요업) 자리임. 90년대 무렵 진흥요업이 이사를 가면서 그 자리에 한국도자기가 들어섬. - (조영숙)엄마가 70~80년대에 진흥요업에 다니셨음. - 진흥요업에서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렸음. 그 소리가 주안동 일대에 다 들렸음. - (조영숙)세미산에서 놀다가 사이렌이 들리면 집에 돌아감. - 문학동으로 넘어가는 쌍용아파트와 신기시장 사이의 길은 원래 없었음. - (조영숙)신기시장과 진흥요업이 딱 붙어 있었고, 신기시장 뒤편으로는 판자촌이 있었음. - (조영숙)판자촌 뒤편은 진흥요업에서 나온 깨진 그릇 집하장이 있었음.		
5. 신기촌으로 유입된 사람들 - (조영숙)학익동, 용현동 일대에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일	-	

대로 잘 다니지 않았음.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기촌 일대로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기시장이 형성됨.		
6. 추억이 있는 장소들 - 기념일에 성당 행사에 참석하여 먹을 것을 받아먹기도 했음. - (조영숙)시민회관 근처의 서문통닭은 82년 은행에 입행한 이후에 생겼음. - (고병선)초등학교 때 갔던 기억이 있는 오래된 중국집인 진흥관은 이제 없어졌음.	-	
7. 문학산 & 남동 염전 - (고병선)당시에는 문학산을 배꼽산이라고 했음. - 레이더기지가 있는 곳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만 다닐 수 있었음. - 예비군 교장이 있는 승학산을 통틀어 문학산이라고 불렀음. - (고병선)승학산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계곡 옆으로 좌판이 있었음. - (조영숙)현재 성황당 자리가 문학산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큰 길이 뚫리면서 자리가 옮겨진 듯함. - 남동 염전은 거리가 있어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 갔던 기억이 있음.	-	
8. 신비마을 - (고병선)진흥요업과 화장터 사이의 산길을 넘어가면 신비마을로 이어짐. - (고병선)어렸을 때는 화장터, 여우고개 등을 지나야 해서 무서운 곳으로 여겨짐. - (고병선)여우고개는 진흥요업과 쌍용아파트 사잇길의 언덕진 곳으로 추정됨. - (조영숙)신비마을 위쪽의 용현동 일대에 중국인들의 밭이 많았음. - (고병선)어렸을 때는 밭 한가운데 석축을 쌓아 올린 큰 웅덩이가 있어 아이들이 다이빙하며 놀 정도. 주안3동 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고병선)겨울에는 작물이 없는 논밭에서 낚가리 안에 아지트를 짓고 놀았음.	-	
9. 중심지 역할을 했던 주안 - (조영숙)동춘동도 남구(미추홀구)에 속해있다가 나중에 연수구로 갈라지며 동 이름을 그대로 가져감. - (조영숙)순복음교회부터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여겨졌음.	-	

- 신비마을 건너 문학경기장 뒤쪽부터 바닷가 쪽 전체를 남촌이라고 불렀음. - 남동구와 연수구 모두 남구(미추홀구)였음. - (고병선)당시에는 주안역과 제물포역 주변이 번성했음. - 수봉산 일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고급 주택이 있었음. 저수지가 길을 따라 있고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있었던 기억. - (조영숙)시청은 지금의 (미추홀구) 보건소 자리에 있다가 중구로 이사함. - (고병선)아시안게임 투포환 선수인 백옥자가 주안초 출신임. - 주안2동 시민회관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짐. 옛날에는 단독주택 위주였다면 지금은 빌라가 많이 들어섬.		
10. 과거의 놀이/문화공간들		
- 동네잔치는 따로 없었으나, 정월대보름 때 쥐불놀이 하는 청년들이 오곡밥을 얻으러 다니곤 했음. - (조영숙)아폴로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문화생활의 전부. - (조영숙)당시 자유공원 밑에 있던 박물관, 도서관에 감. - 자유공원에 놀이기구가 있어 많이 놀러 가곤 했음. 자유공원의 놀이기구는 이후 수봉공원으로 옮겨짐. - (고병선)승학산을 걸어서 진흥요업 앞으로 소풍을 갔음. 김밥, 사이다 등을 도시락으로 싸감. 근처에 사는 가족들이 다 같이 소풍에 따라옴.	-	
11. 마무리		
- (고병선)넷가를 없앤 것이 아까움. 수변공원 등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았을 것. - (고병선)현재 넷가는 인주로로 덮여 있음. 어렸을 때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곤 했던 곳. - (고병선)동춘동에 살 때 염전에서 낚시를 하거나 할아버지 마차를 타고 바다에 나가 생선을 잡아 와 신포동에 팔기도 했음.	-	